



기획시리즈



최 명 섭
임업연구원

인동덩굴

과명 : 인동과
학명 : *Lonicera japonica*
영명 : Japanese Honeysuckle
한명 :忍冬, 水楊藤
일명 : すいかずら

건축, 무늬장식에 널리 쓰이는 인동문「忍冬紋」은 인동덩굴의 떨어나가는 현상에 모델로 만들어졌다. 회랍, 로마,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동문은 현대 건축물에도 실내장식용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특히 이 나무는 낙엽활엽관목(落葉闊葉灌木)으로 구분하지만, 겨울철에도 얼마 정도의 잎이 파랗게 남아 있어 예로부터 왕후귀족들의 실내장식용 관상수(觀賞樹)로 사랑을 받아 왔다.

유사종으로는 잎가 새가지에 갈색털이 있는 것을 털인동(*L. japonica* var. *repens*), 잎의 가장자리 이외에는 거의 털이 없으며, 꽃의 입술부분이 반이상이 갈라지고 곁에 홍색이 도는 것을 잔털인동(*L. japonica* var. *chinensis*), 붉은 꽃이 피는 것을 붉은인동(*L. japonica* var. *rubra*)이라 한다.

1. 생태적 특성

전국에 자생하는 반상록활엽수의 덩굴수목으로 길이 10m까지 뻗으며, 줄기의 굵기는 1~2cm 정도까지 자란다. 파괴된 산림이나 절개지 등에서 무성하며 해변가의 바닷물이 맞닥뜨리는 곳에서도 잘 견디는 내조성 식물로 군집을 이루고, 울폐된 숲에서는 나무에 기어 올라 자라며, 암석지에서도 둥그런 공모양을 하고서 자란다. 늦게 난 잎은 때로 상록으로 월동하기도 한다.

2. 형태적 특성

줄기와 열매는 거친 털이 밀생하고 연녹색 또는 연분홍색을 갖기도 한다. 잎은 마주나며 3~8cm, 넓이 1~3cm로서 잎 가장자리는 부드러운데, 꽃은 6~7월에 백색으로 피었다가 황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7~8mm로서 9~10월에 검게 익는다.

5월하순부터 1백 일 정도 계속

피고 지는 이 꽃은 처음에는 흰색이었다가 황금색으로 변해 '금은화(金銀花)'로 부른다. 꽃은 통꽃(合瓣花)이지만 반이상 갈라져 마치 입술같이 생겼으며, 아랫입술은 갈라지지 않고 가늘며, 윗입술은 넷으로 갈라졌다. 암술은 하나이고, 수술은 5개이며 꽃속에는 많은 꿀을 담고 있어 꿀벌이 즐겨 모여든다.

3. 조경수로써의 활용

웬만한 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아파트베란다에 심을 경우, 이 나무 하나만으로 푸르름을 만끽하는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또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 도시정원의 담장이나 고사목 같은 곳을 타고 올라 가도록 가꾸면 훌륭한 정원수가 되어 아름다운 꽃과 꿀벌을 불러들이는 등 자연 속에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겨울을 이겨낸다'하여 '인동(忍冬)나무'라 부른다. 꽃이 붉게



▲인동덩굴

피는 빨간인동과 노란반점이 있는 노란인동이 모두 귀중한 조경소재인 인동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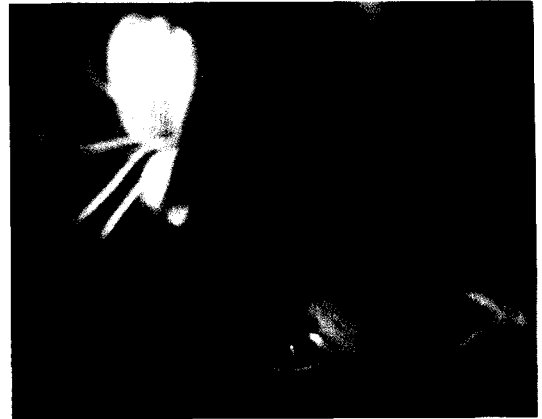
고대로부터도 관상수로 각광을 받아온 전력이 화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무에 대해 용도가치에 따라 10여가지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겨우살이 덩굴, 금은화, 노용수, 밀보둥, 수양둥, 원양둥, 인동초, 좌전둥, 통령초 등으로 그 이름이 다양하다.

암반지역에서도 잘 자라 서양에서는 사방용 조경수로 많이 심

고 있는점을 감안,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암반지역이나 돌산의 녹화를 겸한 조경수로 심는다면 산림녹화수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많은 면적이 매립되고 있는 임해매립지의 지피조경용으로도 알맞은 조경수로 추천할 만하다.

4. 번식법

번식은 분근(分根)이 가장 용이하나 대표를 얻기 위해서는 1년생 가지를 꺾꽂이를 하는데 3월부



▲붉은 인동

터 9월까지 일반 노지에서도 삽목(插木)이 잘 되어 얼마든지 많은 묘목을 생산하여 조경수로 식재가 가능하다. 이 나무 한 그루면 온 마을을 인동덩굴숲으로 조성할 수 있을 만큼 번식력이 강하다.

5. 그 밖의 용도

인동덩굴은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약초로 말린 것 10g분량에 3컵정도의 물을 넣고 그것이 반이 되도록 끓인다. 이것이 1회 분량인데 2회정도 복용하면 감기 증상이나 감기로 인한 구내염에도 효과가 크다.

인동덩굴을 말리거나 프라이팬에 볶아서 끓인 다음, 차대신 마시고 남는 것은 목욕물에 넣어 여성의 피부 미용이나 냉증치료를 위해서 활용한다. 또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이것이 여름의 나른함, 피로 회복에도 좋아 대단히 인기가 좋은 약초로 사용된다.